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왕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송년특집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 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소+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방송계 50 KBC 생활뉴스
11 30 이세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5 안녕 우리말	00 1대100(재)	00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재)	10 닥터 365(재) 15 글로벌 문화유산 50 SBS 12 뉴스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사람과 사람들(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45 닥터 365 55 전국 TOP10 가요쇼(재)
1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생생정보쇼 스페셜	20 문화사색(재)	
2	00 우리말 겨우기 55 안녕 우리말(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5 내꺼야 풀록 30 푸리가 식사교실	00 영재발굴단
3 00 이연경의 직언직설	05 특집 메마른 땅 버려지는 물(재) 55 튜브생물체조	05 후투스 읽어버린 송(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톱? 톱! 키즈쿨 55 꼬마들 도도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레도나마	10 오늘의 경제 특집 다큐 (미래의 축산2편)(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슈퍼레이서 엔지
5 5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칼라피	00 VJ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SBS 뉴스파라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 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7 30 시사현장 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거야)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20 갈데까지 가보자(재)	25 우리집 끝판왕	30 2TV 저녁 생생정보+ 55 1대100	55 2015 MBC 방송연예대상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스타킹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송터	00 월화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00 청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11 00 총격 실화극 싸인(재)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불타는 청춘
12 30 아내가 뽀났대(재)	35 독립영화관 (경의선)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MBC 뉴스24 35 라디오스타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KBS '장영실' 출연진. 왼쪽부터 김명철, 송일국, 박선영, 이지훈, 김상경

KBS 사극 '장영실' 내달 2일 첫방송 ... '삼둥이 아빠' 송일국 주연

조선 과학사 속 숨은 미스터리 밝힌다

조선을 설계한 혁명가(정도전)와 조선 최고 경제가(류성룡)를 되살려냈던 KBS 대하사극이 새해에는 조선 최고 과학자 이야기를 선보인다.

2014년 '정도전'과 2015년 '징비록'을 잇는 새 사극 주인공은 세종 때 활동했던 장영실이다.

1월 2일 밤 첫 방송 되는 KBS 1TV '장영실'은 "별에 미친 조선의 노비"가 어떻게 임금 곁에서 조선 과학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됐는지를 쫓아간다.

장영실은 조선 전기를 배경으로 한 TV 사극에 간간히 등장했으나, 주인공 캐릭터로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영실은 태어난 해와 사망한 해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도로 업적에 비해 알려진 개인사가 많지 않다.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김명철 PD는 장영실 삶을 극화하는 작업이 어려웠지만 재미도 컸다고 밝혔다.

"세종 때 과학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달했던 것은 물론이고, 장영실뿐 아니라 이천과 이순지, 정인지 등 당대 많은 과학자가 함께 훌륭한 업적을 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과학적 성취가 단절됐어요. 그 안에 미스터리가 있어서 그걸 추적하는 작업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노비 출신인 주인공이 불굴의 노력 끝에 종3품에 이르고, 당대 다른 과학자들과 우정을 나누는 과정도 감동적인 휴먼드라마로 되살아난다.

'삼둥이 아빠'로 인기를 끈 송일국이 타이틀을 받았다. 송일국의 TV 드라마 복귀는 종합편성채널 JTBC '발효가족' 이후 4년 만이다. 송일국은 "오랜만에 출연한 사극이라 각자가 남다르고 마음가짐만큼은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장영실'은 삼둥이가 제게 준 선물 같기도 하네요. 삼둥이 아빠 이미지 덕분에 캐스팅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전해준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 TV 사극을 보다가 '지금 사극을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대요.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을 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때 하게 된 것 같아요."

송일국은 "왕이나 장군 같은 (전통적인) 인물이 아니라 장영실은 맑게 대 운이 좋다"고 강조했다.

"'장영실'은 단순히 역사나 당대 과학을 알리는 드라마가 아니라라고 생각해요. 장영실이 신분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 과학기술을 이룩했듯이 우리나라도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꼭 국민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김명철과 김상경은 KBS 2TV '대왕 세종'(2008)에 이어 다시 태종과 세종으로 발탁됐다. 김명철은 장영실을 발탁한 군주, 김상경은 아버지와 다른 통치철학으로 고뇌하는 성군을 연기할 예정이다.

김상경은 "한 역할에 갇힐 수도 있어서 고민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이 역을 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면서 "전작에서는 정치나 한글 창제 과정을 주로 다뤘는데 이번에는 과학인 만큼 다른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영은 태종 딸이자, 세종보다 두 살 많은 누이 소현옹주역으로 등장한다. 장영실 첫사랑이자 그의 비범한 재능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하는 캐릭터다.

김 PD는 "장영실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은 그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의미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실'은 과학 사극인만큼, 당대 과학적 성취를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알차게 다룰 예정이다.

제작진은 별과 태양 운행에서 비롯된 시간의 비밀을 짚어보면서, 명(명)의 시간이 아닌 조선의 시간을 담은 기구인 자격루(물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컴퓨터그래픽(CG) 등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건강라이프  
05:40 성공 인생후반전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07:00 레이디 버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로보카 폴리  
08:00 당동당 유치원1  
08:10 Why-최고다 호기심딱지  
08:20 당동당 유치원2  
08:30 두다다공(재)  
08:40 당동당 유치원3  
08:45 코코코 디코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

09:40 토크쇼 부모 (이슈 N 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영아-독해)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특집 수영안전교육  
13:40 출가문 수학 EBS MATH  
13:50 오카의 오아시스  
14:0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4:2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4: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5:00 꼬마철학자 추고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팽팡(재)  
16:30 코코코 디코(재)  
16:45 당동당 유치원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퓌! 보니하니~3  
18:45 신동방송 공룡 슈퍼  
18:55 생방송 퓌! 보니하니4  
19:00 레이디 버그(재)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남아프리카 국경을 가다>  
21:30 한국기행  
<흑산군도를 가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다류영화 <김 의의 인생>  
23:35 세계의 교육현장  
<오지의 아이들>  
24:05 지식채널e(재)  
24:10 EBS 인문학 특강  
25:00 세계 명작극장  
<구에서 달까지>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짜개념>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1:40 " <문학-알짜개념>  
02:30 " <미적분1>  
03:20 " <수학1>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 <미적분1>  
05:00 뉴탐스런 <물리>  
06:00 " <생명과학>  
06:50 " <동아시아사>  
07:40 " <윤리와 사상>  
08:30 수능열기 <수학(가형)>  
09:20 수능길잡이 <국어-독사>  
10:10 " <영어 독해-구문>  
11:00 " <영어-듣기>  
12:10 5분과문 - 물리 I

EBS플러스2

07:0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강좌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08:30 검정고시 교육강좌  
09:00 출가문 수학 EBS MATH  
09:10 중학 예비과정 <국어1(2)>  
09:50 " <국어3(4)>  
10:30 " <국어5(6)>  
11:10 " <영어1>  
11:50 " <수학1(1)>  
12:30 실천취업가이드  
13:00 데일리 저술형 수학  
13:10 등업신공 <수학1(하)>  
13:50 중학 예비과정 <영어2>  
14:30 등업신공 <수학2(하)>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6:20 만점왕 <수학5-2>  
17:10 " <수학6-2>  
17:20 초등과학 개념잡기  
17:50 다큐 오늘  
18:00 중학 예비과정 <수학2>  
18:40 " <영어3>  
19:20 필독중학 세계사  
20:00 EBS 기획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중학 예비과정 <수학3>  
22:40 중학 예비과정 <수학3(하)>  
23:20 필독중학 <사회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9일 (음 11월 19일 己卯)

**子** 48년생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하기 정확할 것이다. 60년생 자연되면 손해를 부르지 숙연속결 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72년생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84년생 초기에는 힘들지만정 결내는 이루어라. 행운의 숫자 : 96, 48

**丑** 49년생 매우 아름다운 운세가 펼쳐지고 있느니라. 61년생 부담이 경감 되거나 고통이 사라지는 환경이다. 73년생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85년생 이제의 결말이 지어질 아단 계가 되었으니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2, 60

**寅** 38년생 듣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50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62년생 성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74년생 여명에 밀려가는 아쉬움을 보게 되리라. 86년생 시세에 적응하다 보면 환란이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8, 22

**卯** 39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뒤떨어지 않겠다. 51년생 화합하라. 63년생 큰물로 나아가야 대어를 잡을 수 있느니라. 75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87년생 원칙만 고집하다가는 중요한 것을 놓친다. 행운의 숫자 : 38, 72

**辰** 40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고 있으면 원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52년생 들었던 내용은 너무나없는 말이므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4년생 진정한 뜻을 이해하여야 한다. 76년생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지경이다. 행운의 숫자 : 30, 06

**巳** 41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임박하여 환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르게 된다. 53년생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천양지차이니 형국을 제대로 읽고 정확히 판별하라. 65년생 미분책은 화를 부른다. 77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행운의 숫자 : 65, 53

**午** 42년생 순탄하게 진행된다. 54년생 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66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라 아님을 알라. 78년생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니 되니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2, 08

**未** 43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이번이 보인다. 55년생 완곡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다. 67년생 실행하기 전에 유경험자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79년생 영달에 이르는 길은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74, 91

**申** 44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겠다. 56년생 손댈 필요까지는 없으니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 68년생 마음에 다 차지 않더라도 무던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 의도했던 바대로 추진되어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행운의 숫자 : 56, 42

**酉** 45년생 화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다. 57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있노라면 반전되리라. 69년생 길으로는 즐거운 척하겠지만 속마음은 불만하리라. 81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걸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19, 83

**戌** 46년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58년생 주관적인 처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70년생 결보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82년생 속단은 금물이니라. 행운의 숫자 : 45, 27

**亥** 47년생 일시적인 충동 실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59년생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71년생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83년생 형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행운의 숫자 : 36, 9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돌아온 '원조요정' S.E.S "내년 기부음반 낼게요"



'원조 국민요정' S.E.S(바다, 유진, 슈)가 나눔을 위한 새 음원을 발표하는데 뜻을 모았다.

7년 전부터 매년 바자를 열어 나눔의 기쁨을 공유한 세 멤버는 완전체로 새 음원을 발표해 수익을 기부하는 방안을 몇 년 전부터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 슈는 "멤버들이 '음원을 내고 좋은 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 왔는데 얼마 전 만나 이제 더는 미루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7년 전부터 바자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란 걸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상영되지 않으면서 S.E.S란 이름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끼리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유진과 바다의 소속사 관계자도 "세 멤버가 몇 년 전부터 좋은 취지의 음원을 내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곡 의뢰 등 음원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거나 구체적인 발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다 측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러한 취지의 음원을 발표하려 했지만 각자 결혼과 스케줄 등으로 흐지부지됐다"며 "이제 유진도 출산했고 슈도 방송 활동을 재개했으니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은 됐다"고 말했다.

1997년 데뷔하고 2002년 공식 해체한 S.E.S가 내년 음원을 낸다면 14년 만에 '원전체'로 신곡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한 일간지가 'S.E.S가 내년 기부 음반을 내고 정식 컴백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좋은 뜻으로 힘을 모으자는 것이지 '컴백'은 아니다. 구체적인 음원 발표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세 멤버 측 모두 잘라 말했다.

슈는 "멤버들이 최근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 셋이 자매처럼 못처 있던 예전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을 알게 됐다"며 "기부 형식을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하고 셋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MBC TV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 편에서는 바다와 슈가 S.E.S의 전성기 무대를 재현해 화제가 됐다.

**이민정, SBS '돌아와요 아저씨' 로 컴백**

가수 비와 호흡 ... 내년 2월

배우 이민정(33·사진)이 2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이민정은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가 출연을 확정된 SBS TV 수목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엠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28일 밝혔다.

이민정이 맡은 신다혜는 과로사한 40대 만년

과장에서 30대 꽃미남 점장으로 환생한 이해준(정지훈 분)과 특별하고 애절한 사랑을 하는 여자다.

드라마는 아시다 지로의 소설 '초박카야'과 장의 7일간'을 원작으로 했다. 내년 2월 24일 밤 첫 방송된다.

배우 이병헌 아내인 이민정은 2014년 4월 종영한 MBC TV 드라마 '양귀비' 이후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